

토굴 개인소유 무소유 정신에 어긋나 소유·관리 승가공동체 차원서 해야

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생명을 수장하는 순간이 아니고 수정된 지 14일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과 생명의 마지막을 심장이 멈추기 14일 이전의 뇌사상태로 앞당기는 작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불교 아비담마를 전공한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4일 논쟁'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과학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와 사회를 위한 연구라면 불가피한 실생도 좋은 뜻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율장정신으로 본 현대 한국 승가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엄격한 지계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승가에 무소유 정신이 있습니까? 특히 '육식과 오후불식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만의 일부 스님들은 '말세의 타락한 비구의 모습을 보려면 한국에 가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채시주의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엄격한 오후불식을 하고 육식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엄격하게 채시주의를 고수하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채시주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국 승가공동체는 무소유의 정신이 있습니까? 토굴문제가 심각합니다. 출가자들은 무소유가 기본입니다. 적어도 정부관청에 '내 소유물'이라고 등록된 개인 소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유는 승가공동체로, 사용은 출가수행자가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가공동체는 포살과 자자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장정신으로 볼 때, 승가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교구분사 중심으로 결제·해제절이나 적어도 1년에 3~4번은 포살과 자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승가공동체를 출가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사 스님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상 지금

의 율사스님들은 승의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율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출가자가 믿고 의지할 '소의율장(所依律藏)'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섯 가지 율장이 한역됐지만, 한국 승가공동체에서는 소의율장이 없습니다. 한국 승가공동체의 소의율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사스님들이 먼저 소의율장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령 '소의율장을 <사본계율> <오본계율> <광율> <심승율> 등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뒤, 한글로 정확히 번역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한국불교가 가지는 출가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의율장에 대한 제 생각은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 율사인 자은 스님이 번역한 <사본비구계율>을 소의율장으로 제안합니다. 이를 율사스님이 연구하고 한글로 잘 다듬어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율장정신이 현대사회에 있어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각묵 스님이 제안하는 '토굴문화'

"승랍 10년 이하 사용금지 사유화 막고 규모 제한을"

토굴은 출가자가 치열한 자기 수행을 위한 수행처입니다. 그런데 요즘 토굴이 편안하고 해이한 생활을 즐기는 굴벽(窟窟)이 돼 버렸습니다. 개인의 재산으로 지부되고 심지어 들러서 피로를 푸는 호화별장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른 토굴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건물이나 땅 등 개인 소유물을 쉽게 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해서 반드시 종단에 등록하게 해 사유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종단은 토굴의 크기나 시설물 등에 관한 지

논찬

현대사회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우경 스님 (동화사강원 강사)

질문 1 : 법주스님은 율사스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같은 제안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령 종단에서 사미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율원은 율장에 위배되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율원은 기관에 의해 무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사회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듯이 종현 종법이나 종단의 행정이 율법에 어긋나지는지를 가리는 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각묵 스님 : 근원적인 문제는 승가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승가공동체가 중앙종회, 종무행정을 보는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해요. 또 율사스님들이 율장에 기초한 소신 있는 지적을 할 수 있게 종단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율장정신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종헌재판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고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질문 2 : 부처님 법에서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조차 폭력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분노'란 단지 증오에 의해 놓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만약 의로운 분노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

처님 법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각묵 스님 : '의로운 분노'란 표현은 불교적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연민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량심이 바로 불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 승화시켜야 합니다.

질문 3 : '스님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가'란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 막막합니다. 각묵 스님께서는 '우리에겐 무소유의 정신이 있는가?'에서 한국 승가공동체의 재물의 사유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또 삼보정재가 힘 있는 몇몇 일부 스님에게 집중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스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묵 스님 : 율장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율장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 구체적인 모델로 남방불교권 국가마다 제정된 청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태국 승가는 원로스님들이 정한 청규를 받아들입니다. 출가자가 담배 피는 것과 커피마시는 것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출가자가 경험하는 지계실천상의 갈등을 풀어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표표를 위해서 스님들도 승용차를 써야 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종단에서 하고, 사용만 출가자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가자가 생활하면서 계율에서 일어나는 썩어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남걸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스스로 자기 삶, 율장정신 비취 반성해야

힘이 없으면 존재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묵 스님 : 집단적 도덕성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결국 승가 국가 가장 기업 등 어떤 단체나 모임이든 집단적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권위에 승복하고 감복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율장은 권위에 대한 승복을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격성과 고귀한 권위 등에 감복된 것이 바로 율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제국가형태로 가는 유혹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봅니다. 불자 스스로 자기 삶을 율장정신에 비취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 : 생명윤리문제는 요즘 관심이 큰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고 있는 생명공학의 이상열기 분위기에 적지 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불교계의 시각이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 의미의 생명은 수정란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각묵 스님 : 사실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에 아닙니다. 초기불교를 전공한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어머니의 뱃속에 입태(入胎)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삼좌부의 아비담마에서는 심장사心嚕死를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제 상식으로 본다면, 수정된 지 14일, 죽기 전의 14일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 천동,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無聲** 전동, 번개 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모방하여 자연의 100%순수 자연의 신선한 공기 생성
- 無필터** 신소재 탄소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클리어의 세척만으로 5년 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동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동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맑은 공기층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시킨다. 리빙에어는 이와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중성을 가라거나 회색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원제품이며 특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원까지 청정 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₃))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증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시찰 및 복지기**에 꼭 필요합니다.

www.o2air.net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어렵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퍼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 교과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성, 쇠승, 각단체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예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 교육기간 (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특전**
본대학은 조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 문의**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시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철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중무원 부설 교양대학